



식품업계
펫푸드 생산 등
‘펫 프리미엄’ 전략
L1

metro®

Life

셀트리온
‘바이오USA’서
신약 파이프라인 공유
L2



“30년간 받은 사랑 보답”… 최고의 경기로 ‘축제의 장’ 연다

BBQ 30주년 맞아 FC바르셀로나 초청

“치킨은 스포츠와 함께 할 때 가장 맛있다는 말처럼 BBQ와 함께하는 이번 FC 바르셀로나 방문 경기는 최고의 맛과 최고의 경기가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10일 제너시스 BBQ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창사 30주년 기념 ‘FC 바르셀로나 아시아투어 서울매치’ 초청 후원 발표회를 열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BBQ가 스페인 축구 구단인 FC 바르셀로나를 국내로 초청, FC서울과의 ‘서울 매치’ 경기에 메인스폰서로 참여해 후원을 진행한다. 경기는 오는 7월 31일에 삼암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다.

가장 먼저, 윤홍근 제너시스 BBQ 회장이 첫 연사로 나서 후원 행사 의미를 전했다.

그는 “올해 2025년은 BBQ에게 있어 뜻깊은 한해”라며 “바로 3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라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이번 행사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닌, 스포츠와 브랜드, 팬과 그리고 문화가 하나 되는 세계적인 축제의 장이자, 30년을 BBQ와 함께해 주신 국민께 올리는 BBQ의 진심 어린 감사의 무대”라며 행사 기획 의도를 전했다.

많은 구단 중 특히, FC 바르셀로나를 초청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회장은 FC 바르셀로나를 두고 “36세 노장 레반도프스키와 17세 천재 축구선수인 야말 및 하피냐 등이 한 팀에서 뛰면서 세계와 문화를 잇는 팀워크를 보여줄 뿐 아니라, 성장하고 함께 나아가는 조직의 가치를 상징하는 구단”이라고 칭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이 바로 우리 BBQ가 추구해 온 경영 철학과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회장은 이번 축구 경기 후원을 계기로 또 한 번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한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BBQ 창사 30주년 기념 FC 바르셀로나 초청 서울 매치 행사는 BBQ의 긴 여정을 또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출발점이자 강력한 메시지”라며 “앞으로의 30년의 제너시스 BBQ는 치킨을 넘어서 국민 여러분과 세계 80억 인류에게 감동을 전하고 문화를 연결하고 가치를 함께 나누는 대한민국의 낯은 세계 1등 기업이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현재 BBQ는 국내 약 2300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로는 57개국에 진출해 4500여 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30살 맞이한 BBQ…친선 경기 티켓 3만장 교부

BBQ는 30주년을 기념해 이번 친선 경기 3만장 티켓을 배부하는 행사를 실시한다.

무료 티켓 프로모션인 ‘골든티켓 페스타’를 이달 11일부터 내달 25일까지 45일간 진행한다. 자체 애플리케이션인 ‘BBQ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기존 BBQ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과 더불어 신규 고객 모두 이벤트 참여 기회가 부여된다. 친구 추천을 통해 지인이 가입한 경우에도 응모 기회가 부여되며, BBQ 애플리케이션에서 치킨 구매 고객에게도 응모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 티켓 무료 행사 역시 고객 사랑에 대한 보답 의미라는 게 BBQ 측 설명이다.

현장에 참여한 제너시스 BBQ 이동영 커뮤니케이션 실장은 프로모션에 대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참여하고 100% 당첨되는 행운권 프로모션을 기획했다. 이는 BBQ의 모든 고객을 위한 작은 선물이자 감사의 표현”이라고 전했다.

별도 티켓 판매 역시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고객 감사에 개념으로 이번 FC 바르셀로나 서울 매치를 준비했기 때문에 당연히 3만 장 전체가 기본



윤홍근 제너시스 BBQ 회장이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FC바르셀로나 아시아투어 서울매치’ 초청 후원 발표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FC바르셀로나 경기 관련 골든티켓 배부 행사 이미지.



송영주 축구 해설가 겸 유튜브가 행사에 참여해 연사를 이어가고 있다.

FC바르셀로나 초청… 15년만에 방한
7월 31일 열리는 ‘서울 매치’ 경기 후원
30주년 맞아 국민들에 감사 전하고자

축구경기 후원 계기로 새로운 도약 나서
세계에 문화·감동 전하는 1등 기업 될 것

무료 티켓프로모션 ‘골든티켓 페스타’
별도 판매 없이 고객 위해 3만장 배포



적으로 회원권 대상으로 가장 많이 배부되는 것”이라며 “결국 다른 저희 BBQ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고객분들께 전부 다 돌아가는 것이다. 별도 판매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BBQ가 초청하는 FC바르셀로나, 어디길래

또, 행사에는 송영주 축구 해설가가 참여해 FC바르셀로나의 역사와 발자취를 소개했다.

송 해설가는 “FC 바르셀로나는 1899년 11월에 창단했다. 지난해 11월이 125주년이였다”며 “(그 긴 시간 동안) 스페인은 스페인 내전도 있었고, 프랑코 독재 시절도 있었다. 그 가운데 FC바르셀로나는 125년 동안 투쟁과 경쟁, 혈투를 벌이면서 새로운 역사를 써온 구단”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 크고 작은 우승 트로피를 125개나 획득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 최고의 클럽, 유럽 최고의 클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FC바르셀로나의 아시아 투어에서 한국 시장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FC바르셀로나가) 이번 아시아 투어를 통해서 아시아 시장을 개척하고 아시아 팬들의 수를 늘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라며 “특히, 한국 시장은 흐름을 주도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인기를 선점하면 아시아에서 인기를 선점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15년 만에 방한하는 FC바르셀로나는 내달 31일 FC서울과 하는 친선 경기 후, 오는 8월 4일에는 대구 FC와의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파리올림픽 역도 은메달 박혜정, 와우매니지먼트그룹과 계약
▲조계사 내 불교중앙박물관 불…문화유산 8점 긴급 이운 /사진 뉴스스

▲카타르서 등번호 없던 오현규, 북중미선 주전 공격수 노린다
▲박원빈, 전국육상경기대회 남자 3000m 장애물 우승

▲‘토니상’ 박천후 작가 “그저 하던 대로, 대신 좀 더 열심히”
▲갤러리현대, 2025 ‘아트바젤 바젤’ 참가…이승택 솔로 부스